

2001년도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1850년~2000년을 중심으로)



2002. 6. 30

주관기관: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 박암종)
참여기관: (주)디자인하우스

산업지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년도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결과보고서

한국디자인 사료(史料)의 DB화에 관한 연구
(1850년~2000년을 중심으로)

2002. 6. 30

주관기관: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 박암종)
참여기관: (주)디자인하우스



-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본 연구는 웹사이트로 개설해 많은 디자인 관련자들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추후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홈페이지 www.desigbdb.com에 별도의 사이트로 개설해 올릴 계획임으로 이를 참고바랍니다.

■ 제출문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기간: 2001. 7. 1 ~ 2002. 6. 30)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6월 30일

주관기관명: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 박암종

■ 요약서(초록)

사업명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1850년 ~ 2000년을 중심으로)		
주관기관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총괄책임자	박암종
총사업기간	2001. 7. 1~2002. 6. 30		
총사업비(천원)	정부출연(현금 47,500천원), 민간기업(현물 29,060천원) 계:76,560천원		
참여기관	(주)디자인하우스, 월간 디자인		
주제어	한국디자인, 디자인사, 디자인사료, DB, 디자인연보, 디자이너		

1. 최종개발목표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개발 결과
5. 기대효과

■ 목차

머리글 / 6

1. 개발의 필요성 / 7

2.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12

 가. 개발의 최종목표 / 12

 나. 연구기간 및 범위 / 12

3. 자료수집 및 검증방법 / 15

 가. 자료선정방법 / 15

 나. 자료수집방법 / 16

 다. 자료검증방법 / 17

4. 연구내용 / 18

 가. 연구대상 / 18

 나. 개발의 범위 및 내용 / 28

 다. 웹사이트 구조도 / 31

 라. 웹디자인 / 32

3. 건의사항 및 추후과제 / 57

4. 연구원 소개 / 58

■ 머리글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디자인 관련 사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해 디자인 관련 매체 등에 한국디자인사에 관한 연구결과를 게재하였다. 나름대로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디자인 역사찾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하였다.

때마침 산업자원부의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공모 및 당선을 통해 2차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9~2000년에 진행된 1차 연구는 수많은 디자이너와 관련 기업, 단체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여 A4 11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2001년~2002년에 진행된 바로 금번 2차 연구는 이들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려 많은 디자인 및 관련자들의 활용에 기여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너무나 많은 양에 대해 교정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웹사이트로 구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빼았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 좀더 신경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전체가 구축이 되면 다음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쓸을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내 최대의 한국디자인사 관련 포털 사이트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다행인 것은 연구도중, 귀감이 되는 선배디자이너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 한국디자인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디자인 교육을 받은 임숙재 선생이 탄생한지 103년이 지나고 대학을 졸업한지는 74년이 지난 2002년.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제 임숙재 선생을 비롯하여 이순석, 한홍택, 최정호님을 <한국디자인 명예의 전당>에 현정하게 되었다.

1차로 선정한 이 4분은 우리 디자인의 암흑기에 이론분야 보다는 실용분야에 몸을 던진 분들이다. 당시 일정시대는 디자인과 같은 전략적 중요 분야에 한국인의 교육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분들은 혜안을 가지고 과감히 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디자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최초로 디자인을 전공했다든지 광복 후 초창기 대학에 재직해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선각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한글의 글자꼴을 디자인하여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분이다.

<한국디자인 명예의 전당> 개설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 온 우리들. 뿌리를 잊지 않음은 물론 현정된 분들을 높이 기리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탁월한 전문 능력과 고매한 인격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표가 되는 분들을 엄선하여 명예의 전당에 현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개설된 <한국디자인사연구회>도 우리 디자인사를 연구하는 최초의 단체로서 의미깊은 동호회라 생각한다. 보다 활성화시켜 한국디자인사에 관한 폭넓은 관심과 연구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연구사업 총괄책임자 박암종

1. 개발의 필요성

【개발의 최종목표】

1차년도에 정리된 한국디자인 사료의 각종 자료들을 점검하여

◆ 오류를 바로잡고

◆ 미비된 점을 보완하며

◆ 빠진 부분을 추가하여 자료를 보다 완벽하게 집대성한다.

이 정리된 자료들을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 웹사이트로 구축해

널리 공급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우리 디자인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관련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기술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정책적 측면

1. 한국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 제공

2000년 ICOGRADA 서울대회, 2001년 ICSID 총회,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이같은 행사는 디자인의 힘(Design Power)'이 최대한 발휘되야만하는 대규모의 행사들이다. 이같이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된 대규모의 디자인 행사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 디자이너들이 대거 몰려 올 것이고 이때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국디자인의 뿌리는 어떤 것인가' 또는 '한국디자인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등과 같은 문제일 것이다. 그럼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 산하 디자인 진흥기관에서 주도

이같은 당위성을 가진 사업을 국제적인 대회를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정부 공인 진흥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의명분을 살림과 동시에 진흥원 본래의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흔미한 우리 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정리하는데, 사실기관이 아닌 공인된 기관에서 주도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 디자인의 '뿌리찾기'와 '뼈대세우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 박물관(사이버 박물관 포함)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내 디자인 사료를 정리한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공 DB화 구축은 물론 이를 통해 향후 디자인 박물관(사이버 박물관 포함)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단시간에 이를 수 없는 박물관 설립에 앞서 디자인 사료의 발굴, 조사, 복원, 확보, 색인 등의 작업을 통해 오랜 준비 기간이 걸리는 디자인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역사적 측면

1. 복원해야 할 개화기 이후의 한국디자인

조선시대 이후 36년간 일제의 압제하에 있었으나 그 시기도 엄연히 우리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우리 역사가 단절된 것

이 아닌데도 근대디자인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산업혁명 이후 태동된 서구 디자이의 역사가 체계화되어 존재하고 있듯이 그 기간동안의 우리 역사 약 150년간을 복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찾아보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남아져 있고 광복 후에는 그들로 인하여 현재 우리 디자인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이를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될 것이다. 반드시 이 기간에 행해진 우리 디자인의 각종 결과물과 행위를 찾아 복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2. 90년대 들어 연이은 디자인계 원로의 작고

안타깝게도 한국 디자인계의 큰별인 이순석 선생이 1986년 작고한 이래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홍택 선생(1994년 작고), 신동우 선생(1995년), 최연호 선생(1996년) 등에 이어 작년에는 한창기 선생(1997년)이 작고 하였다. 이순석 선생과 한홍택 선생은 근대 한국 디자인의 본류로 인정할 만큼 수많은 활동과 후학들을 배출해 내었으며 신동우 선생은 '풍운아 홍길동' 애니메이션과 각종 출판 삽화를 제작하였다. 최연호 선생은 40년간 연극과 TV무대디자인을 담당하였으며 한창기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트디렉션과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뿌리깊은나무>의 발행인으로서 디자인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표지디자인 작업에 자주 참여하였던 조병덕 선생 또한 2000년에 작고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디자인의 산 역사를 간직하고 계신 분들의 연세는 대부분이 80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고령이다.

3. 소중한 디자인 사료의 훼손 및 멸실 방지

이같이 우리나라 디자인사에 있어서 초창기를 개척하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어려운 환경을 개척한 디자인계 원로들의 디자인 관련 사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를 방지할 경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디자인 자료들이 훼손되고 분실됨으로 인해 다시는 우리의 생생한 디자인 역사를 남길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 정확한 디자인 사료의 발굴·조사·교정·색인 작업

우리나라의 디자인 초창기를 개척하신 분들이 살아 계실 때 디자인 사료에 대해 정확한 제작연도, 제작의도를 비롯해 각종 작품에 담겨있는 의미있는 내용들을 보다 분명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마다 다르게 표기된 제작연도와 제작자 등 오류로 보이는 디자인 역사에 대해 초창기 활동했던 디자인 원로들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와 색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전인미답의 분야로 남겨진 이 분야를 복원하는데 역사적인 가치를 정확히 판별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산업발전적 측면

1. 정보시대에 대비한 한국디자인 사료의 공공 DB화

숨겨지고 흩어져 있던 소중한 디자인 사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관련자 모두에게 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DB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국디자인 역사와 전개를 한눈에 소개하는 웹사이트로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우리 디자인 역사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예컨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외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디자인 역사를 소상히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도가 높은 웹사이트 구축

텍스트로 된 자료를 넘어서서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웹사이트로 구축하여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 DB의 성격에 맞게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3. 기업의 디자인 발전 역사 홍보를 통한 간접적인 기업이미지 재고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중요 부분에 영문을 삽입하여 외국인들에게도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외국인에게 기업의 역사와 개발 제품들의 소개까지가 되어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 상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나.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1) 기술동향분석

최근 복고주의에 대한 선풍이 일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디자인이 차제에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자료를 집대성 축적화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성숙되게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때 자료를 집대성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인 웹사이트를 구축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동향분석

국내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디자인 대학원생들의 수중에서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구디자인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선 우리 근대디자인의 디자인 사료를 접하기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논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논문의 연구대상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에 한국디자인의 역사와 뿌리를 홍보하여 우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점증되고 있는 동양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한국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3) 경쟁력 분석

지금까지의 디자인 관련 연구가 세분화되고 개별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이를 관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우리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와 대학기관 그리고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디자인 잡지사의 협력하에 한국디자인 사료의 DB를 개발할 경우, 보다 공인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곳에서 개발한 자료보다도 정확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4)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전망

조선왕조실록의 CD롬 작업 완료를 비롯해 각종 연구단체에서는 한국의 미술품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들을 CD롬으로 개발해내고 있다. 예를들어 삼성디자인연구원의 97년도에 개발한 '석굴암' 소개 CD롬, 같은 해에 개발된 민경우(명지대) 교수가 주도해 개발한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 연구'를 비롯해 삼성디자인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자인에 있어서 한국의 정신(조선:1392~1910)' 등이 그 한 단면들이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의 진정한 디자인의 태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체계화하여 텍스트로 만들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해서 CD롬 타이틀을 제작 보급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

서구디자인사에 관한 연구는 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근래 까지 디자인사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각종의 참고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디자인사들도 거의가 서구디자인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쓰는 교재 또한 그들이 지은 책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각디자인의 역사가 가장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필립 B. 맥스의 <시각디자인의 역사>를 비롯해서 <산업디자인의 역사> 등이 대표적인 저작들이다.

그러나 한국디자인의 역사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집은 전무한 상황으로서 정시화 교수의 <한국현대디자인연구>가 그간 유일하게 정리된 자료의 하나이다. 기타 분야별(그래픽, 광고, 사진, 텍스타일, 건축디자인 등)로 연구된 학위논문과 이경성 선생이 지은 <공예통론> <공예개론>과 각종 평론을 비롯해 최공호의 <한국공예사>에 관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각종 디자인 협회 및 단체의 연혁집이나 사료집을 비롯해 각 기업체별 사사자료 등이 그간의 우리 디자인 역사의 편린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같은 선행연구와 본인이 연구한 결과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서 1999년에 작업 완료된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인 우리나라 디자인사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보고서로만 50부가 제작 배포되었고 진흥원의 디자인 DB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나 미흡하고 오류가 눈에 띌 것으로 인해 활용도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본인(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박암종)이 연구한 다음과 같은 연구 등이 있는 바

- (1)도서장정의 사적 변화와 특성(개화기~1960년대)(출판잡지연구 제5호, 출판문화학회/1997. 2. 20)
- (2)광복전 한·일간 디자인 관련 분야의 교류에 관한 연구(디자인학연구 제22호, 한국디자인학회/1997. 10. 17)
- (3)한국 잡지편집디자인 100년의 변화/ 한국잡지협회, 1995. 1. 31
- (4)뿌리깊은나무의 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1998. 5. 30
- (5)세창양행, 뿌리깊은나무 그리고 se 8001/ 산업디자인 150호, 96. 11~12

또한 6회에 걸쳐 월간 디자인에 연재한 한국디자인 100년사

- (1)한국디자인 100년사(1)(개화기~1945)/ 월간 디자인 206호, 1995. 8
- (2)한국디자인 100년사(2)(1945~1965:상)/ 월간 디자인 207호, 1995. 9
- (3)한국디자인 100년사(3)(1945~1965:하)/ 월간 디자인 208호, 1995. 10
- (4)한국디자인 100년사(4)(1966~1975:상)/ 월간 디자인 210호, 1995. 12
- (5)한국디자인 100년사(5)(1966~1975)중)/ 월간 디자인 211호, 1996. 1
- (6)한국 디자인 100년사(6)(1966~1975:하)/ 월간 디자인 212호, 1996. 2

가 현재 디자인의 역사가 종합적으로 연구된 유일한 것들이다.

본인이 15회에 걸친 디자인계 원로와의 대담 또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을 수 있다.

- (1)파우스트와 목숨 바꾼 무대디자인의 장인 최연호 선생/ 월간 디자인 213호, 1996. 3
- (2)한국 패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자 선생/ 월간 디자인 214호, 1996. 4
- (3)반세기를 한글 서체 개발에 몸 바쳐 온 최정순 선생/ 월간 디자인 215호, 1996. 5
- (4)한국미술재료산업의 개척자 전영탁 선생/ 월간 디자인 216호, 1996. 6
- (5)50년간 4만여점을 그린 출판미술의 원조 김영주 화백/ 월간 디자인 217호, 1996. 7
- (6)국내 옥외광고의 개척자 김석도 회장/ 월간 디자인 219호, 1996. 9
- (7)한국 만화영화의 선구자 신동현 화백/ 월간 디자인 221호, 1996. 11
- (8)한국 그라피디자인의 역사와 함께 한 이시용/ 월간 디자인 222호, 1996. 12
- (9)프로정신으로 50년을 달려 온 사진작가 김한용 소장/ 월간 디자인 223호, 1997. 1
- (10)한국 디자인계를 이끈 평론계의 원로 이경성/ 월간 디자인 224호, 1997.
- (11)옹골찬 한국미를 출판에 되새김한 한창기/ 월간 디자인 227호, 1997. 5
- (12)큐빅운동으로 한국 건축계를 선도해 온 조성렬/ 월간 디자인 229호, 1997. 7
- (13)국내 최초 라디오 금성 A-501을 디자인한 박용귀/월간 디자인 234호, 1997년 12
- (14)평생 한글개발과 한글기계화에 몸바친 장봉선/월간 디자인 237호, 1998년 3
- (15)출판 삽화가로 활동한 전 이대 교수 조병덕/ 월간 디자인 243호, 1998. 9
- (17)대를 이어 공예가의 길을 간 인숙재 임홍순 부자/ 월간 디자인 250호, 1999. 4
- (18)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문달부/ 월간 디자인 251호, 1999. 5월호
- (19)한시대 이름을 남긴 사진작가 문선호/ 월간 디자인 252호, 1999. 6
- (20)한국산업디자인의 파이오니어-민철홍 선생/ 월간 디자인 253호, 1999. 7
- (21)섬유와 인테리어 분야의 1세대 디자이너 배만실. 월간 디자인 259호, 2000. 1

이외에도 최근 2000년 3월 한국디자인진흥원 30년사를 집필하였으며 현재는 월간 <디자인>지에 한국디자인역사찾기를 연재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1)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개화기부터 근래까지 국내 디자인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는 만큼 이를 체계화해서 DB화 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디자이너는 물론 해외 디자이너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특히 공백으로 남아져 있는 조선시대 이후의 기간을 분명한 우리의 역사속에 포함시킴으로써 활발한 연구가 시도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물론 각종 첨단의 매체에 활용해 국내 디자인의 고유성을 홍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자인의 뿌리를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 디자인의 모든 것이 서구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착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디자인 의식을 고양하여 장차 경영자, 정책 담당자, 교육자 및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 흐름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다.

2)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 (1)디자인 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
- (2)연구논문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 (3)디자인 박물관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4)국제적인 디자인 행사에 홍보용으로 활용
- (5)외국인에게 한국이미지 소개 자료로 활용

3) 기업화, 추가기술개발, 기술이전방안

(1)월간 디자인/디자인하우스의 홍보

개화기 이후부터 국내 디자인 사료를 DB화한 경우가 없음으로해서 많은 이들이 이 전인미답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구 결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럼으로 자료 사용료를 주고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참여기관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하우스사의 월간 <디자인>을 통한 홍보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웹사이트에서의 찾아보기(Searching Function)와 인터렉티브(Interrective) 기능 추가

최초로 한국 디자인사를 집대성하는 만큼 방대한 자료의 수집, 분석, 가공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의 결과를 극대화하고 사후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사업의 진행이 요구되어 왔다. 그럼으로 1차년도에는 텍스트 위주의 보고서 작성과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고 차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로 된 책자를 제작하고 CD롬 타이틀로 제작해 내는 것이 활용도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특히 웹사이트는 단순히 내용만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기 기능과 누구나 자료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자료의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개발의 최종목표

- 1) 한국 디자인사료의 집대성
- 2) 한국 디자인사료의 체계화
- 3) 한국 디자인사료의 대표화
- 4) 한국 디자인사료의 정확화
- 5) 한국 디자인사료의 활용화에 입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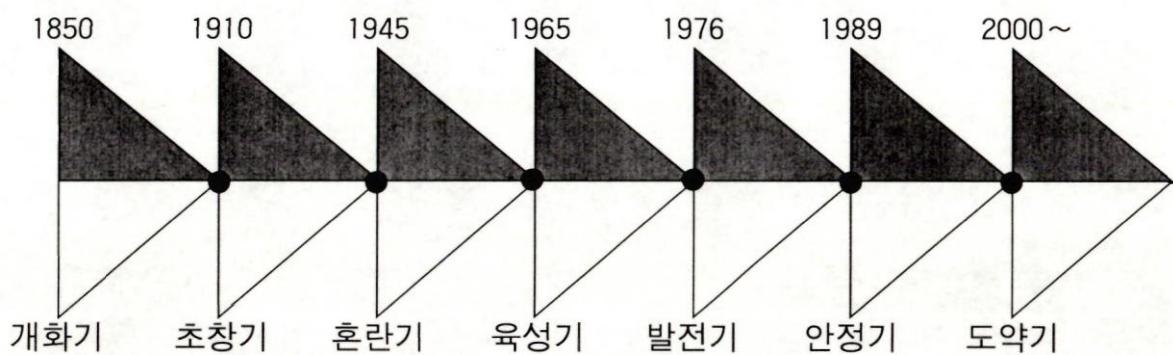
최종적으로는 한국 디자인사료에 대한 DB구축화방안으로서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나. 연구 기간 및 범위

1. 연구기간

- 1) 18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 150년간
- 2) 1800년대는 개화기로서 서구의 문물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유입되던 시기
- 3) 2000년은 연이은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역량과 존재가 보다 드러난 시기
- 4) 이 150년간은 개화의 시기에서 압제의 시기, 광복 후 동족상잔의 시기 그리고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의 시기 등 격동의 세월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 보고 우리의 흔적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한 분야로서 이 기간 동안의 디자인 흔적들을 꿰고 엮어 디자인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이 기간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



2. 연구범위

- 1) 인물: 공예, 시각, 제품, 기타 분야(포장, 인테리어, 환경, 애니메이션, 사진, 무대, 의상, 재료, 인쇄) 약 119명
- 2) 기관: 진흥기관, 교육기관, 협회, 학회,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약 40개 기관
- 3) 기업체: 가전, 운송기기, 포장, 광고대행사, 인쇄소 등 약 46개 업체
- 4) 기타: 전시회 및 공모전, 디자인 잡지 등 약 37개 사항

〈연구범위〉

분야	인물	기관	기업	디자인출판	관련산업	비고
항목수	100명	38개 기관	40개 업체	16개 사항	17개 사항	총211개 항목
추가	19명	2개 기관	6개 업체	1개 사항	3개 사항	총31개 항목
합계	119명	40개 기관	46개 업체	17개 사항	20개 사항	총242개 항목

*1차년도 연구에서 빠진

디자인정책 및 경영

디자인이론

산업도자

인쇄프로세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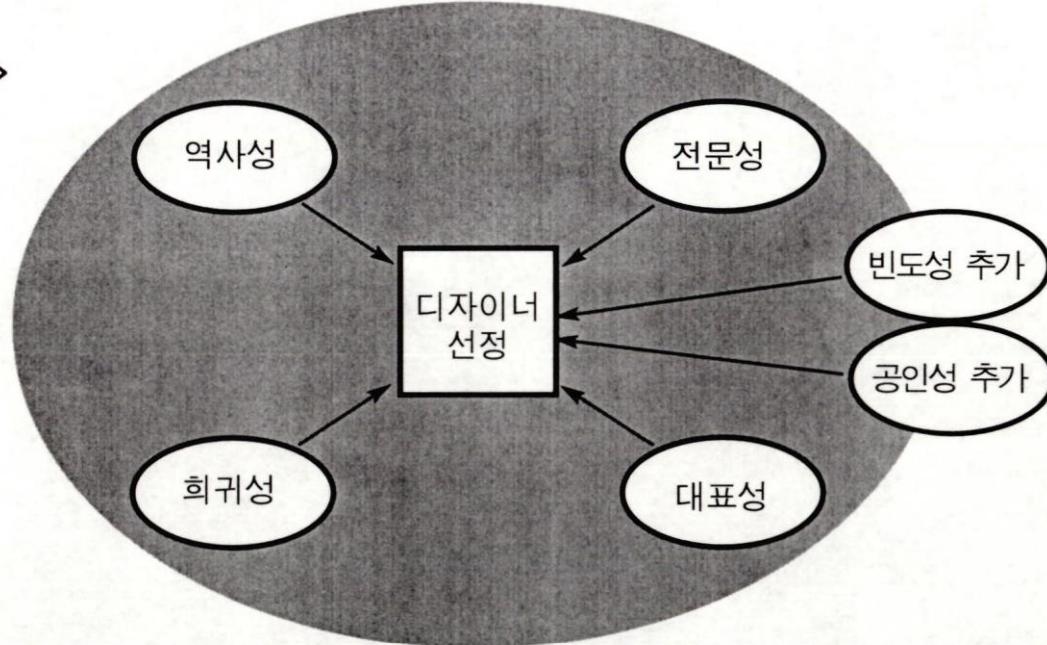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빠진 내용을 추가 삽입

3) 개발내용 선정 원칙

(1) 인물 선정은 디자인 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 역사성: 광복(1945년) 전 출생하여 우리나라 디자인의 초창기를 개척하였으며
- 전문성: 한 분야에 30년(1세대) 이상 몸담아 그 분야에 정통하고
- 희귀성: 디자인 관련 자료와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내용을 간직하고 있으며
- 대표성: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을 엄선하였다.
- 공인성: 공인된 기관에서 수상한 사람들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인물, 기업, 단체를 선정하였다

〈선정원칙〉



2.현재 디자인계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활동 당시의 역할이 특별히 두드러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추가해서 선정하였다. 또한 디자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그 분야의 초창기를 개척한 사람들도 예외로 선정하였다.

3.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진흥이나 교육에 큰 기여를 한 기관 및 학교들로 선정하였다. 디자인 사료 및 각 기업의 디자인 관련 제작물은 역사적인 가치(최초 개발품, 당시 최신 성능, 시대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스타일)와 자료찾기의 용이성을 기준으로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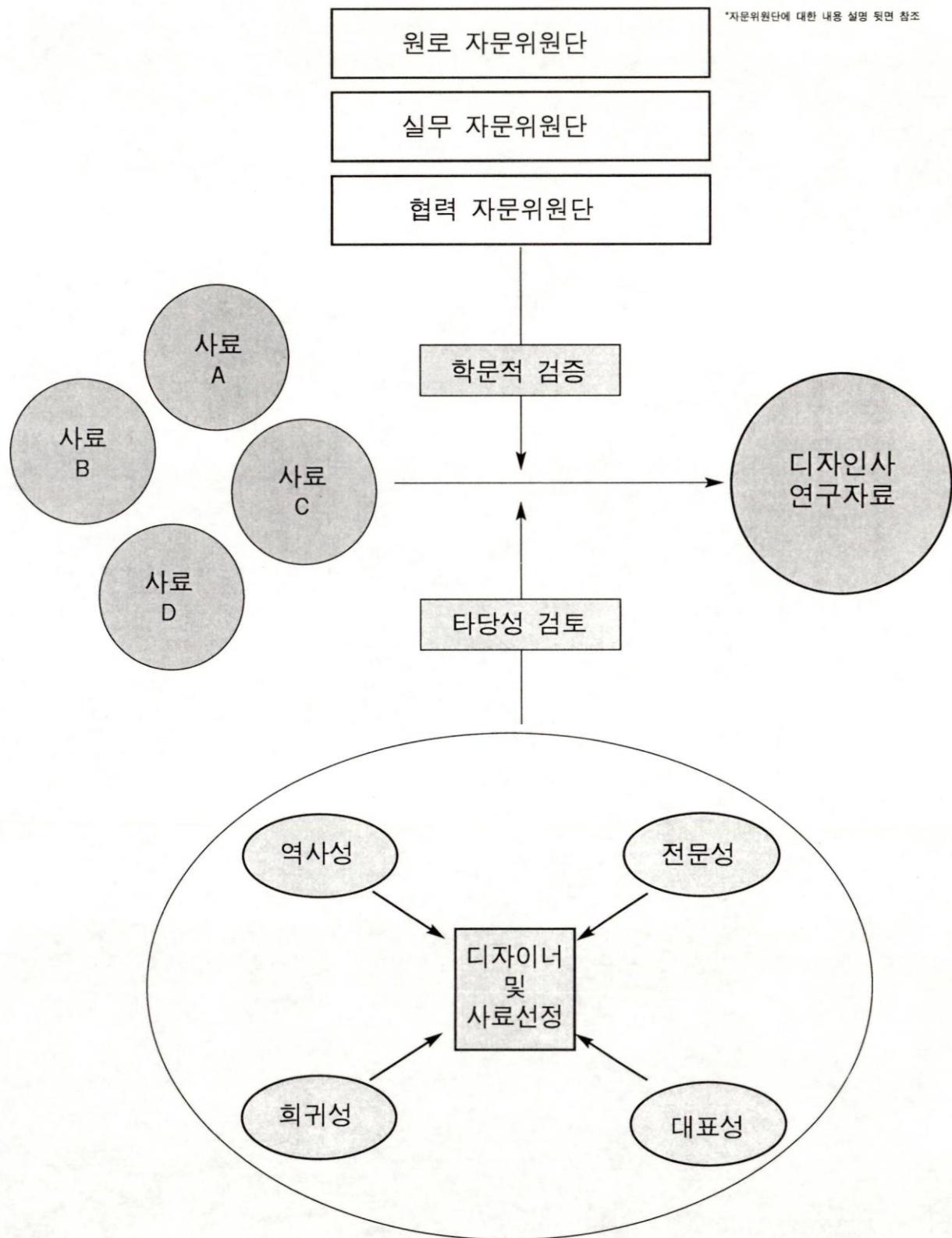
*1차년도에는 이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디자이너를 선정하였으나 연구 기간이 2000년까지 확대됨으로써 나이와 상관 없이 활동내용에 비중을 두고 엄선하고자 하였다.

*디자이너 선정시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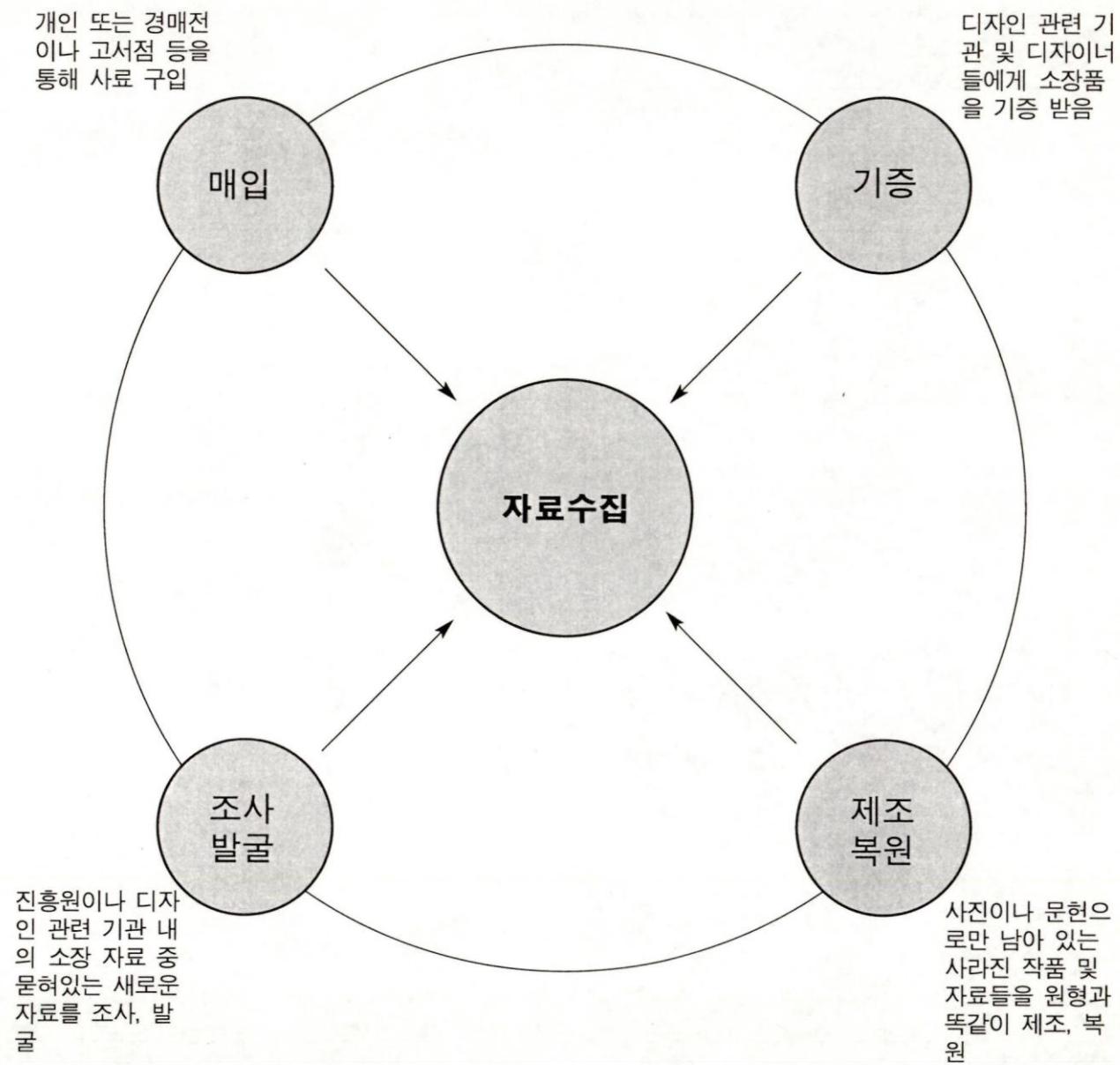
- (1)대표적인 언론에 활동이 소개되거나 거론 빈도를 참고하여 추가 인물 선정
- (2)부분별 중견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아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및 검증방법

가. 자료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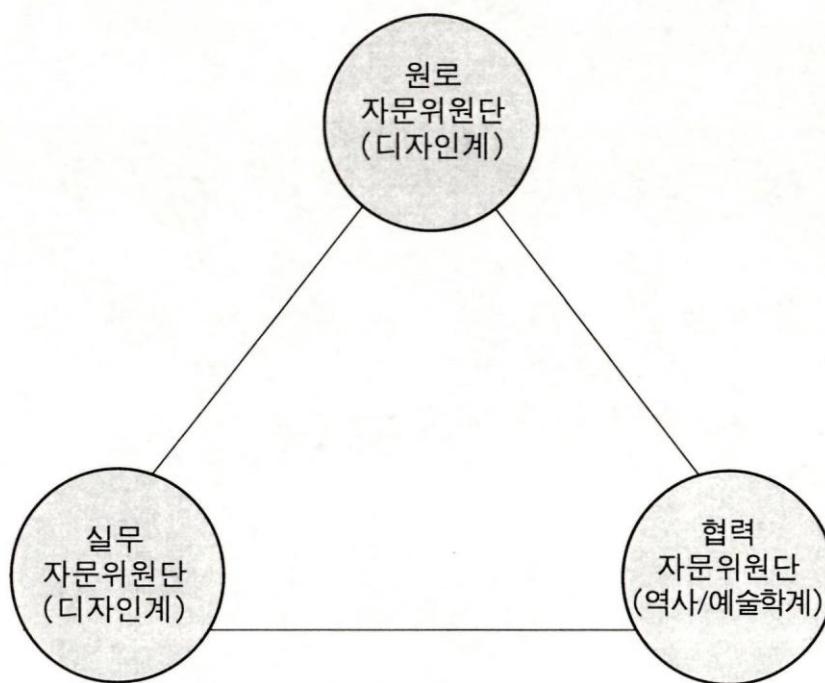


나. 자료수집 방법



다. 자료검증 방법

(1)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 원로 자문위원회

각 분야별 60세 이상된 디자인계
원로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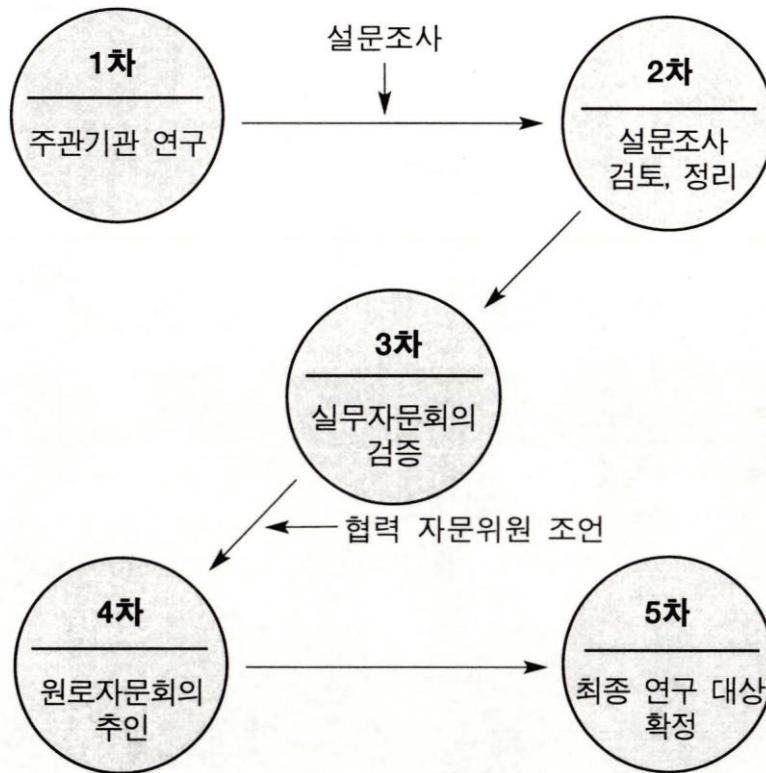
● 실무 자문위원회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등록된 디
자인 단체의 대표들을 위촉해 구
성

● 협력 자문위원회

처음으로 정리되는 디자인사임으
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리를
위해 역사학계 및 예술학 분야
학자를 위촉하여 구성

(2) 자료 검증 단계



● 설문조사 대상자

1. 각 대학의 디자인과 학과장
2. 디자인 관련 단체의 임원
3. 디자인 기업체 임원
4. 디자인 관련 연구소 및
기관 임원

4.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1. 인물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 이병현(李秉玹:1911~1950): 산업미술가협회전 참여, 최초로 서울대 회장 디자인, 작고한 초기 디자이너
- 한홍택(韓弘澤:1916~1994): 동경도안전문학교 졸업, 산업미술가협회 결성, 작고한 원로 디자이너
- 김교만(金教滿:1928~1998): 전 서울대 교수,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래픽 디자이너, 작고한 원로 디자이너
- 이근배(李根倍:1928~): 전 서일전문대학장, 산업미술가협회 고문, 원로 디자이너
- 박선의(朴善義:1936~): 교육가 겸 중견 디자이너

타입페이스 디자인

- 이원모(李源模): 동아일보 서체디자인 공모 당선
- 박경서(朴慶緒: ?~1965): 천재적인 활자자모 조각가
- 최정호(崔楨浩:1916~1988): 한글서체 대부분을 개발한 최고의 서체디자이너
- 최정순(崔貞淳:1917~): 최정호와 쌍벽을 이룬 국내 최고의 신문서체디자이너
- 김진평(1949~1998): 작고한 활자및 서체이론 그리고 타입페이스 디자인의 선구자
- 안상수(安商守:1952~): 탈네모틀 폰트디자인의 선구자

일러스트레이션

- 김영주(金榮注:1919~1998): 작고한 원로 삽화가, 초대 한국출판미술가협회 회장
- 이순재(1920~): 원로 삽화가
- 전성보(1927~): 원로 삽화가
- 홍성찬(1929~): 원로 삽화가
- 김광배(1933~): 원로 삽화가
- 이우경(1941~): 원로 삽화가
- 김공웅(1942~): 국내 최고의 에어 브러쉬 테크니션 및 일러스트레이터
- 이복식(1947~): 제품용 캐릭터 개발의 선구자

편집디자인

- 이상철(李祥喆:1944~): 국내 최초로 편집디자인에 그리드 시스템 운용, 아트디렉터
- 김형윤(1946~): 국내 초기 편집디자인 정착에 기여한 편집인겸 디자이너
- 정병규(鄭丙圭:1946~): 북디자인의 명칭을 정착시킨 중견 출판디자이너

아이덴티티디자인

조영제(趙英濟:1935~): 서울대 교수, OB맥주로 국내 최초의 본격 CI 제작, 국내 최초의 CI전 개최

박재진(朴在進:1940~): 서린호텔에 국내 최초의 CI 적용, 도미

권명광(權明光:1942~): 홍익대 교수, 쌍용그룹으로 국내 최초의 그룹 CI 제작

김현(金炫:1949~): CI 전문회사 디자인 파크 운영,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제작

포장디자인

김광현(金光顯:1935~): 교육가 겸 중견 패키지 전공 디자이너

장윤호(張潤昊:1943~): 국내기업 최초의 포장디자인 부서인 전 해태 디자인실 실장

선정근(宣定根:1946~): 국내 중견 전문 포장디자이너

신정필(1946~): 국내 중견 전문 포장디자이너

광고디자인

신성완(1948~): 중견 광고인

김동선(金東先): 김동선광고미술연구소 소장

이관구: 원로 광고인

표지디자인

이승만(李承萬:1903~1975): 광복전 삽화계 삼천왕 중 한 명, 신문과 단행본 표지디자인 다수

정현웅(鄭玄雄:1910~1976): 좌파미술가로 당대 최고의 표지디자이너

김환기(金煥基:1913~1974): 근대미술가로 다수의 책표지 디자인

조병덕(趙炳德:1916~): 산업미술가협회 창립회원, 책표지 및 삽화 다수 제작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일반

박대순(1929~): 원로 교육가 겸 디자이너

민철홍(閔喆弘:1933~): 교육가 겸 원로 디자이너, 서울 미술대 산업디자인과 명예교수

부수언(1938~): 교육가 겸 중견 디자이너

가전제품

박용귀(朴容貴:1933~): 국내 최초로 진공관 라디오 'A-501' 디자인

김철호(1947~): 국내 최초의 그룹디자인 연구소 소장

정국현: 국내 최대전자제품 생산업체인 삼성전자 디자인실의 최고 책임자

운송기기

박종서(1947~): 국내 최고의 자동차디자이너 겸 현대자동차연구소 소장

일반용품

김영세: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는 중견 제품디자이너

공예디자인

금속공예

김정섭(金鼎燮:1899~1988): 중요무형문화재 제 35호 조각장(彫刻匠) 기능보유자

이학응(李鶴應:1900~1988): 중요무형문화재 제 78호 입사장(入絲匠) 기능보유자

김근수(金根洙:1916~?): 중요무형문화재 제 77호 유기장(鑄器匠) 기능보유자

도자공예

김재석(金在奭:1916~): 전 이대 교수. 원로 도예가

황종구(黃鍾九:1919~?): 전 이화여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원대정(元大正:1920~): 전 홍익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권순형(權純亨:1929~): 전 서울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황종례(黃宗禮:1927~): 전 국민대 도예과 교수. 원로 도예가

목공예

박성삼(朴星三:1907~1989): 국전 특선 및 심사위원

백태원(白泰元:1923~): 전 중앙대 공예과 교수

임홍순(任洪淳:1925~): 전 이화여대 자수과 교수

김성수(金性洙:1935~): 중앙대 공예과 교수

칠공예

전성규(全成圭:1880~1940): 1925년 파리 세계장식미술전람회 동상 수상, 나전실업소 설립

임숙재(任璣宰:1899~1937): 국내 최초의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공예가

김진갑(金鎮甲:1900~1970): 이왕가미술품제작소 졸업, 선전(鮮展)과 국전에서 심사위원 역임

김봉룡(金奉龍:1902~1994):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철칠기장, 1925년 파리세계장식미술전서 은상수상

장기명(張基命:1903~1964): 이왕가미술품제작소 졸업, 선전과 국전에서 활동

강창원(姜蔥園:1906~1977): 동경미술학교 졸업, 건칠공예 전공

석공예

이순석(李順石:1905~1986): 전 서울대 교수,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국내 최초로 디자인 용어 사용

자수 및 염색공예

장선희(張善禧:1893~1970): 자수연구가, 경성여자기예학원 설립

유강열(劉康烈:1920~1976): 전 홍익대 공예디자인과 판화담당 교수

배만실(裴滿實:1923~): 전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의상담당 교수

백태호(白泰昊:1925~): 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 염색담당 교수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김중업(金重業:1922~1988): 르 끄르뷔지에에게 사사받은 작고한 원로 건축가

김수근(金壽根:1931~1986): 작고한 원로 건축가

김원:건축사무소 '광장'의 소장인 중견 건축가

인테리어디자인

조성열(趙聖烈:1936~): 실내건축디자이너,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창립동인, 큐빅디자인연구소 소장

문신규(文信圭:1938~): 국내 최초 인테리어 전문잡지〈꾸밈〉 발간,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창립동인

장충섭(1939~):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손석진(1940~):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이창근(1943~):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오의조(1944~): 중견 인테리어디자이너

환경디자인

한도룡(韓道龍:1933~): 국내외 다수의 박람회 전시 디자인 작업

김경영(1948~): 국내 중견 환경연구소인 라미 환경미술연구소 운영

무대디자인

김복진(金復鎮:1901~1940): 근대조각가, 토월회에서 무대디자인 활동

김정환(金貞桓:1912~1973): 토월회에서 무대디자이너로 활동

최연호(崔衍昊:1931~1996): 최근 작고한 국내 최고의 무대디자이너

원우전(元雨田): 1902년 설립된 원각사(圓覺社)의 무대디자이너

장종선(張鍾宣): 동경제국미술학교 졸업, 해방후 활약했던 무대디자이너

미니어쳐

기홍성: 국내 최초의 모형제작사 회장 및 모형 전문디자이너

영상디자인

CF

문달부(文達富:1930~): 국내 최초로 광고에 캐릭터 도입

윤석태(尹錫泰:1938~): 세종문화 경영, 한국광고의 기반조성에 기여

강한영: 국내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애니메이션

신동현(申東憲:1927~): 진로소주 CF를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신동우(申東雨:1937~1995): 국내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홍길동〉 제작

신능파(申能派:1936~): 넬슨신, 애니메이션 전문지 <애니메이툰> 발행인

한성학: 국내 초기에 활동한 원로 애니메이터

의상디자인

서양의상

최경자(崔敬子:1911~): 1938년 국내 최초의 양재학원인 함흥양재학원을 설립한 최초의 패션디자이너

진태옥(1934~): 중견 패션 디자이너

이신우(李信雨:1941~): 중견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국내 최고의 남성 디자이너

한국의상

이리자(李利子:1935~): 중견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세계 패션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한복디자이너

석주선(石宙善:1911~1996): 작고한 궁중복식의 대가,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설립

이론, 평론

이론

신인섭(申寅燮:1929~): 원로 광고인, 현 한국광고연구원 고문

임영주(林永周:1943~): 국내 최초로 한국 문양자료를 집대성한 문양 및 공예이론가

정시화: 국내 초기 디자인사를 정립한 중견 디자인 교육자

평론

이경성(李慶成:1919~): 원로 평론, 국내 최초로 디자인 분야 평론

이구열: 공예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한 미술평론가

정책 및 경연

정책

이낙선: 초대 진흥원장 이사장 및 원장

조태호: 2대 진흥원장

장성환: 3대 진흥원장

김희덕: 4대 진흥원장

이광노: 5대 진흥원장

조진희: 6대 진흥원장

유호민: 7대 진흥원장

노장우: 8대 진흥원장

정경원: 최초의 민간 출신의 진흥원장

경영

구자홍: LG 전자 부회장으로 디자인 경영을 강조한 CEO

정몽구: 디자인 경영을 중시한 현대자동차의 CEO

2. 기업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조홍은행(1897): 각종 포스터를 비롯한 홍보물

진로소주(1924): 광복 전부터 변해 온 진로소주 라벨

유한양행(1926): 각종 포스터 및 전단지 등과 같은 홍보물

신세계백화점(1930): 미쓰코시백화점으로부터 제작된 각종 홍보물

OB맥주(1952): 광복 전부터 변해온 맥주 라벨

포장디자인

태평양화학(1932): 화장품 캠페인 포스터

서울우유(1937): 국내 최초의 유제품 포장디자인

해태제과(1945): 국내 최초의 포장디자인실 포장디자인

럭키화학(1947): 국내 최초의 치약, 비누 포장디자인

애경(1954): 주방세제의 대명사인 애경 트리오 포장디자인

삼양라면(1961): 국내 최초의 라면 포장디자인

농심라면(1965): 국내 최고 생산량의 라면포장디자인

롯데제과(1967): 국내 제과류 포장디자인

광고디자인

두산그룹(1896):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삼성그룹(1938):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쌍용그룹(1939): 한국적 이미지 광고디자인

대우그룹(1967): 해외광고 및 시리즈 광고디자인

SK그룹(1969): 기업이미지 광고디자인

광고대행사

에드코리아(1958~?): 6.25사변 이후 활동이 활발했던 광고대행사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1967~1979):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전문 광고기획실

만보사(1969~1975): 광복 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본격 광고대행사

오리콤(1967): 합동광고와 만보사와의 합병으로 탄생

제일기획(1973):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국내 최초의 그룹 자회사 광고대행사

연합광고(1974): 후에 MBC 애드콤으로 변화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LG전자(1958): 국내 최초의 가전 전문생산업체

삼성전자(1969): 국내 중견 가전 전문생산업체

대우전자(1971): 국내 중견 가전 전문생산업체

쌈지(주): 미술 및 디자인을 가미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로만손(주): 국내 최고 디자인 수준을 자랑하는 시계제조업체

에스콰이어: 국내 최고 수준의 토탈 패션디자인 업체

동아연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문구류 제조업체

운송기기디자인

기아자동차(1944): 광복후 최초로 설립된 국내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현대자동차(1946):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하동환자동차(1955):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신진자동차(1955):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대우자동차(1978): 국내 자동차 전문생산업체

가구디자인

한국가구(1965): 국내 중견 가구사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보르네오(1966): 국내 중견 가구회사

한샘(1970): 국내 중견 가구회사

동서가구(1973): 국내 중견 가구회사

윤씨농방(1976): 전통 목가구를 생산하는 가구회사

공예디자인

산업도자

밀양자기(1941):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기회사

행남자기(1942):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한국도자기(1943):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요업개발(1970): 국내 중견 자기 생산회사

3.기관

진흥기관

한국공예시범소(1957) : 노만 디 한(Norman R. De Hann)이 설립한 국내 최초 제품디자인 지원기관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1966) : 서울대학교 부설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 디자인연구기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1997) : 한국공예기술연구소(1965), 한국디자인센터(1969),

한국수출디자인센터(1969) : 수출을 주도하기 위해 세워진 디자인진흥센터

한국디자인포장센터(1970)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전신으로 수출상품의 포장에 주력했던 기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1991) : 위 기관들을 통합 또는 계승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진흥기관

교육기관

관립공업전습소(1907) : 염직, 도기, 금공, 목공, 응용화학, 토목 6개과 개설

한성미술품제작소(1908) : 금공, 염직, 제목(製墨), 철공, 도자부 개설

기독교청년회관 부설 공예학원(1917) : 목공, 철공, 석장, 식공, 등공, 사진, 인쇄과 개설

나전실업소(1927) : 나전칠기 공예가 전성규가 서울에서 설립한 양성소

태천칠공예소(1937) : 평안북도 태천에 설립된 나전칠기 학교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1945) : 서양화 전공, 동양화 전공, 자수 전공 개설, 1년 후에 도안전공 개설

서울대 예술대학 미술학과(1946) :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각과, 도안과 개설. 국립대학으로 많은 인재배출

홍익대 미술과(1950) : 초급대학부 안에 미술과 설치. 사학의 명문으로 수많은 인재배출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초기부터 디자인 및 공예과 개설. 많은 인재 배출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초기부터 디자인 및 공예과 개설. 많은 인재 배출

언론사

조선일보(1920) : 고깃구체 등 신문 활자체 개발

동아일보(1920) : 이원모체 등 신문활자체 개발

한국일보(1954) : 자회사 한국컴퓨터그래피와 함께 전산조판 보급

중앙일보(1965) : 본격 가로쓰기 실시 신문

KBS: TV무대디자인의 산실

MBC: TV무대디자인의 산실

협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1946)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단체

한국디자이너협회(1972) : 국내 중견 디자인 단체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1972) : 국내 중견 산업디자인 단체

한국시각디자이너협회(1972) : 국내 중견 시각디자이너 단체

한국공예가협회(1973) : 국내 중견 공예가 단체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1978) : 국내 최초의 패키지 전문 단체

한국디자인학회(1978) : 국내 최초의 디자인 학회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1979) : 국내 최고, 최대의 인테리어단체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1984) : 현재 해체된 그래픽디자이너 협회

서울일러스트협의회(1985) : 국내 최대의 일러스트레이션 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1987): 국내 최대의 실내디자인 학회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1988): 국내 법인 디자인단체를 회원으로 한 연합회

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1992): 국내 최대의 텍스타일 협회

한국시각정보디자이너협회(1944): 국내 최대의 시각디자인 단체

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국내 중견 그래픽디자이너의 협회

공모전

광고도안현상선발대회(1926): 광복 전 최초로 개최된 광고 관련 공모전

상업미술전람회: 광복 전 개최됐던 디자인 공모전 및 전람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1932~1942): 일제가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 공모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공예부(1949): 가장 권위 있었던 미술 공모전

조선일보 광고대상(1964): 국내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창작 광고 공모전

LG국제디자인공모전(1984):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한국일보광고대상(1984): 중앙 일간지 한국일보가 개최하는 광고 공모전

한국공예대전: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공예 공모전

4. 디자인출판

출판

열화당(1971): 국내 최대의 미술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출판사

디자인하우스(1976): 국내 최고의 디자인 잡지 월간 〈디자인〉을 발행하는 출판사

미진사(1977): 국내 최대의 디자인 관련 서적을 발행하는 출판사

예경(1978): 국내 최대의 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관련 서적을 발행하는 출판사

시각문화사(1978): 1980년대 가장 왕성한 디자인 전문 도서를 발간했던 출판사

안국문화사(1980):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제작물 모음집을 발간하는 출판사

안그라피스(1985): 국내 중견 디자인 전문 도서 출판사

조형사(1987): 디자인 전문 도서 출판사

뿌리깊은나무사(1976)

잡지

산업디자인(1970): 국내 최고의 공적 성격의 디자인 잡지

월간디자인(1976):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 잡지

꾸밈(1977):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및 토탈디자인 잡지

포름(1980):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시각디자인(1987):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디자인저널(1988): 폐간된 디자인 전문 저널

디자인비지니스(1989):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코스마(1989): 폐간된 디자인 전문 잡지

디자이네트: 월간 디자인과 함께 선두를 달리는 토탈디자인 전문지

5. 관련산업

인쇄

시조사(1909): 국내에서 최고로 오래된 인쇄소

보진재(1912): 오래되고 가장 많은 인쇄물을 생산해 낸 인쇄소

평화당(1920):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쇄소

두산동아(1945):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대형 인쇄소

광명인쇄(1951):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갖춘 대형 인쇄소

삼화인쇄(1954): 규모와 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쇄소

국정교과서: 교과서 전문 인쇄를 위해 설립된 공공 성격의 인쇄소

인쇄 프로세스

한국광양사: 국내 최고 수준의 인쇄 프로세스 업체

LSY원색제판연구소(1968): 국내 최초로 자비 서독 유학한 이시용이 설립한 프로세스사

로얄프로세스(1980):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프로세스사

제지

홍원제지(1957): 국내 최고의 제지 생산업체

한국제지(1958): 국내 최대의 제지 생산업체

한솔제지(1965): 국내 최대의 제지 생산업체

디자인 재료

알파색채(1963): 국내 최대의 미술재료 생산업체. 국내 최초로 포스터 칼라 생산

신한화구(1967): 국내 최대의 미술재료 수입 및 생산업체

두성산업(1982):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수입지 상사

한글 기계화

공병우 타자기: 작고한 공병우 박사가 만든 타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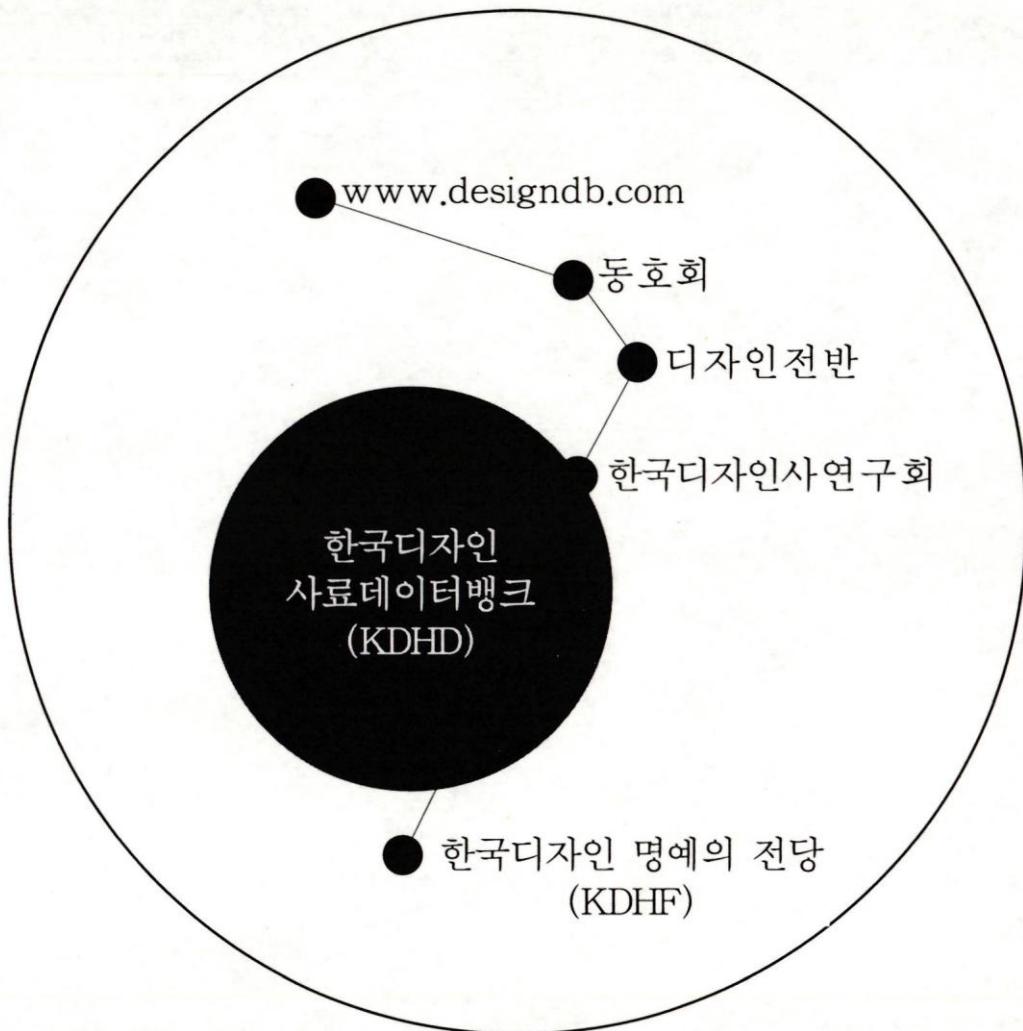
장봉선 장타이프사: 서체개발과 사진식자기를 개발한 장봉선이 세운 사진식자기사

옥외 광고

제일광고네온(1958): 원로 옥외광고제작업자인 김석도가 세운 광고사

나. 개발의 범위 및 내용

1) 그림으로 본 개요



-기본 사항으로는 1차년도에 집대성된 인물, 기관, 기업, 디자인출판, 관련산업에 관한 총 211개 항목을 올리는 작업과 추가로 총 35개의 사항을 정리해 웹사이트로 디자인해 내는 작업이다.

-이와 함께 한국디자인 명예의 전당 및 동호회 개설은 부수적인 항목으로 기본 사항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2)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기능

본 웹사이트는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색깔 및 몇 개의 애니메이션, 빽빽한 그라운드 이미지를 제외한 부분은 html로 작성되어 있어서 html에디터로 충분히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컬러의 사용에 있어서 유저들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 있어 차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명도와 채도를 낮춘 패스텔 톤으로 제작하였다.

각 페이지별로 구성과 디자인을 살펴본다.

1. Intro Page(layer1)

본 사이트의 심볼은 역사성과 회귀성이 있는 연어를 형상화하였다. 암각화에 새겨진 형상을 다듬어서 고풍스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연어를 주제로 한 '흐름'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인트로 화면으로 꾸몄다. 이는 추후 교체가 가능하며 또 주제별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2. Main Page(layer2, 3)

실질적인 메인페이지는 사용자가 처음 접속했을 때 보게되는 페이지로 각 소규모 컨텐츠와 기타 뉴스와 공지사항을 접하게 되는 페이지이다. 위 아래에 각 컨텐츠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을 정리된 그리드 안에 놓았으며, 업데이트시 늘어날 수 있는 버튼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질 것이며 새로운 사진자료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Contents Page(layer4, 5, 6, 7, 8)

유저들이 가장 많이 머무를 부분으로서 내용보다는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을 배제하고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는데 있어서 책과는 달리 웹상에서는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유저들이 스크롤바를 이동할 때, 윗 부분은 그대로 두게하여 지속적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기본적인 메뉴는 각각의 대분류의 이미지에 맞게 색깔로 차별화를 두었고 내용을 검색할 때 착오가 없게 구성되어 있다.

계단별구조로 검색하기가 용이하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업데이트 및 관리이므로 내용과 관련된 모든 편집은 그에 맞게 html 문서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다.

단 수려한 편집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단계적으로 좀더 손쉽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동사이트 링크(layer 9)

사이트 내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마스터와 관련된 사이트는 컨텐츠의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한다. 이는 연관된 홈페이지가 본 사이트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차후 웹사이트가 신설될 경우엔 이곳에 링크버튼이 만들어진다. 외부 사이트일 경우엔 새로운 창으로 링크페이지를 연결할 계획이다.(layer12)

5. Sub menu(layer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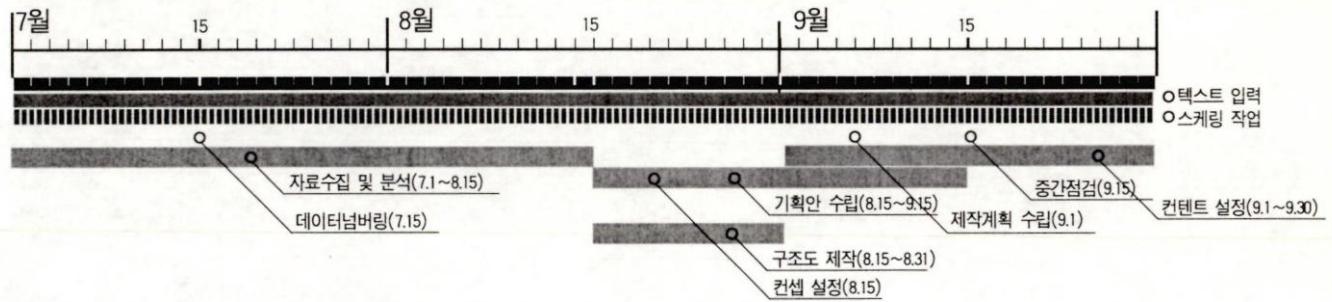
보조 메뉴로서 메인 메뉴버튼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상시 기능을 할 수 있게 위치하고 있다.

6. Sitemap(layer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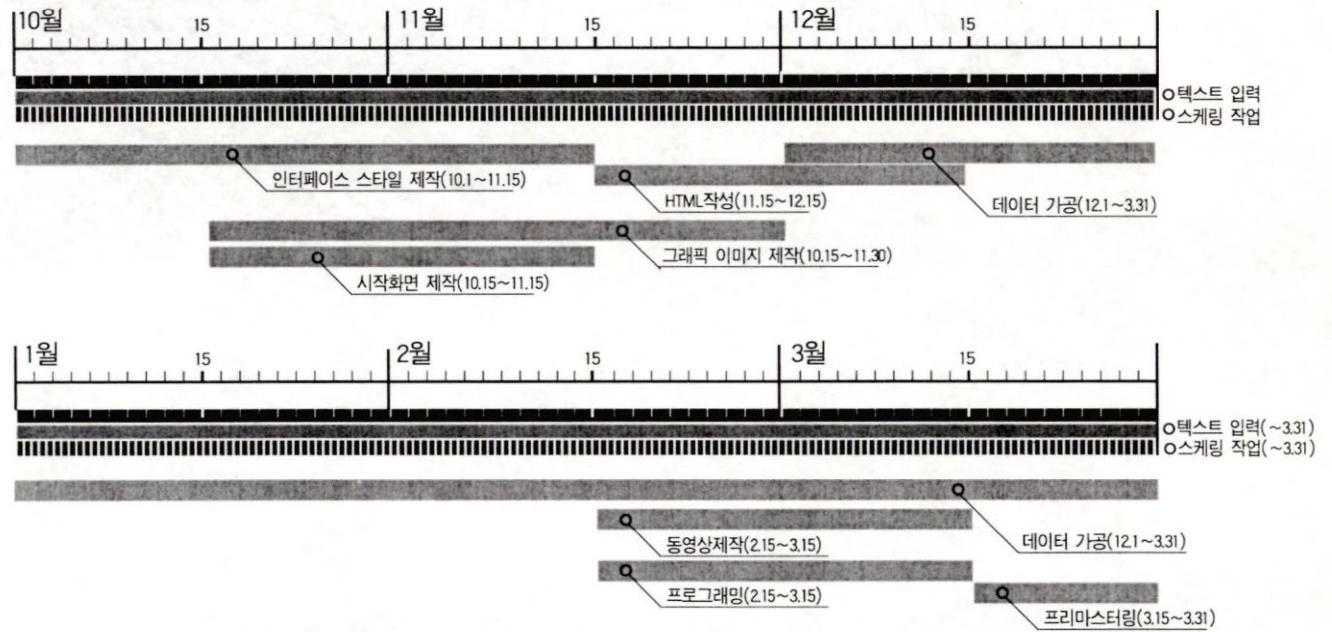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한눈에 검색하여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이다. 각 메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3) Web site 개발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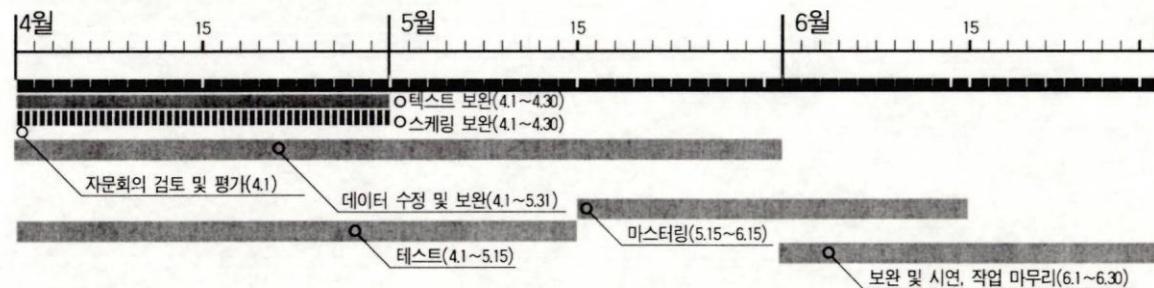
기획단계



제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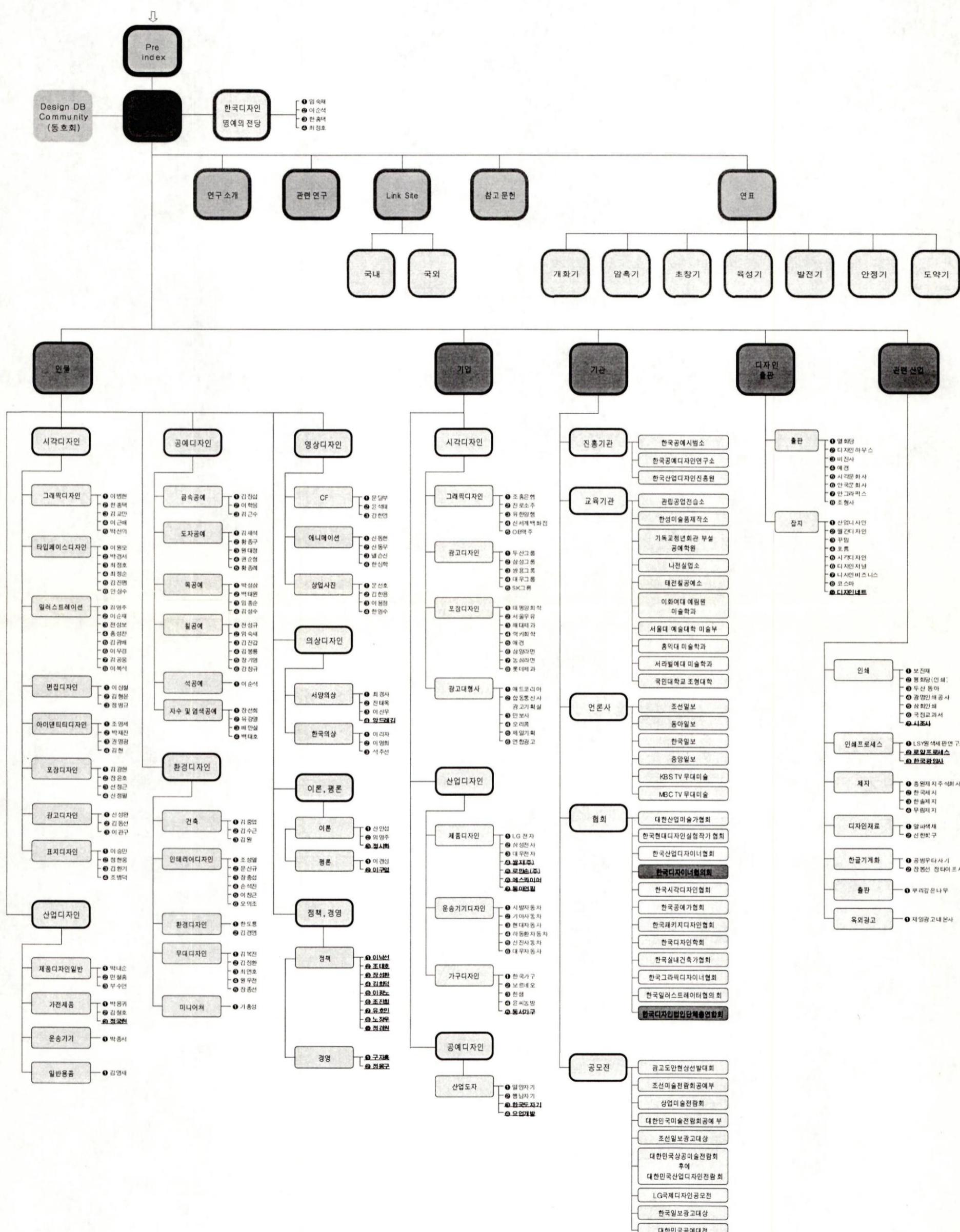
보완단계



다. 웹사이트 구조도 / 이하 다음 페이지 도표 참조

한국디자인 사료의 DB화에 관한 연구 – WEB SITE 구조도

* 굵은 글자는 추가된 항목임.



라. 웹디자인 / 이하 다음 페이지부터 게재된 사이트 디자인 참조

세부 웹디자인1-프리 인덱스

■ 뉴스-5개항목

■ 공지사항-2개



한국디자인사료데이터뱅크
Korea Design Histological Databank

세부 웹디자인2-프리 인덱스

세부 웹디자인2-한국디자인 명예의 전당

- 임숙재
- 이순석
- 한홍택
- 최정호

◎NEWS

1. 한국디자인박물관 웹사이트 개설
 2. 디자인체험관 구축 추진위원회 위원단 위촉
 3. 디자인 도시 '성남시'의 성과와 실적
 4. 박물관 천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부천시'
 5. 재개발이 시작된 청개천 황학동 거리
- more



◎공지사항

• 기증자료모집

디자이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중 중복되거나, 오래되어 보관하기 힘든 것 중에서 디자인 사료적 가치가 단되는 자료를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증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품목

제품디자인, 스케치 작품, 포스터, 카타로그, 디자인도서, 디자인작품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

-기증장소

한국디자인사연구소(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1 금호빌딩 302호)

(핸:016-362-1855)

• 수정사항 문의

본 사이트에 기록된 내용중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이 올라 있음으로 수정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하신 사항중 만약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웹디자인3-연구소개

- 개발의 최종목표
- 개발의 필요성
- 연구기간 및 범위

◎연구소개

● 개발 내용

가. 개발의 최종목표

한국 디자인사료의 집대성

한국 디자인사료의 체계화

한국 디자인사료의 정확화

한국 디자인사료의 대표화

한국 디자인사료의 활용화에 입각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국 디자인사료에 대한 DB구축화방안으로서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나. 개발의 필요성

1. 한국디자인의 역사성과 정체성 제공

정책적 측면

2. 정부 산하 디자인 진흥기관에서 주도

3. 디자인 박물관(사이버 박물관 포함) 설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 복원해야 할 개화기 이후의 한국디자인

사회·역사적 측면

2. 90년대 들어 연이은 디자인계 원로의 작고

3. 소중한 디자인 사료의 훼손 및 멸실 방지

4. 정확한 디자인 사료의 밟굴·조사·교정·색인 작업

1. 정보시대에 대비한 한국디자인 사료의 공공 DB화

기술·산업발전적 측면

2. 활용도가 높은 웹사이트 구축

3. 기업의 디자인 발전 역사 홍보를 통한 간접적인 기업이미지 재고

다. 연구기간 및 범위

1) 18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 150년간

2) 1800년대는 개화기로서 서구의 문물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유입되던 시기

3) 2000년은 연이은 국제적인 행사개최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역량과 존재가 보다 드러난 시기

연구기간

4) 이 150년간은 개화의 시기에서 압제의 시기, 광복 후 동족상잔의 시기 그리고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의 시기 등 격동의 세월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 보고 우리의 흔적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한 분야로서 이 기간 동안의 디자인 흔적들을 꿰고 엮어 디자인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이 기간을 선정하였다.

1) 인물: 공예, 시각, 제품, 기타 분야(포장, 인테리어, 환경, 애니메이션, 사진, 무대, 의상, 재료, 인쇄) 약 100명

연구범위

2) 기관: 진흥기관, 교육기관, 협회, 학회,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약 50개 기관

세부 웹디자인4-관련연구

- 광복 이전 한일 디자인 관련 교류
- 잡지편집디자인 100년의 변화
- 국내 장정의 역사적 변화와 특성
- 한국디자인진흥원 30년사

◎관련연구

- 광복 이전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관련 교류에 관한 연구
박암종/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 잡지편집디자인 100년의 변화
박암종/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 국내 장정(裝幘)의 역사적 변화와 특성
박암종/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 한국디자인진흥원 30년사
박암종/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세부 웹디자인5-링크 사이트

■ 국내 사이버미술관

■ 해외 사이버미술관

LINK SITE

● <우리나라 사이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moca.go.kr

서울시립미술관 metro.seoul.kr/muse

호암미술관 hoammuseum.or.kr

한국미술협회 kfaa.or.kr

가나아트닷컴 ganaart.com

아트선재 artsonje.org

아트서울 artseoul.net

이갤러리 egallery.co.kr

잭시겔러리 gallery.xy.co.kr

갤러리수 user.netpark.co.kr/~nagne324/5972

네오아트몰 neoartmall.com

넷아트 netart.co.kr

아트미 artmi.co.kr

월간미술 art.joongang.co.kr

● <해외 사이버미술관>

루브르미술관 louvre.fr

바티칸미술관 christusrex.org/www1/vaticano

스미소니언박물관 nmaa.si.edu

이스라엘박물관 imj.org.il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미술관 www.artic.edu

코닝유리 박물관 www.cmog.org

시카고 아테나에움 건축디자인 박물관 www.chi-athenaeum.org

구겐하임 미술관 www.guggenheim.org

Getty미술관 www.getty.edu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www.lacma.org

세부 웹디자인6-인물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공예디자인
- 환경디자인
- 영상디자인
- 의상디자인
- 이론-평론
- 정책-경영



[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성명] 조성열(趙聖烈/Cho Sung-Yul)

[생몰연대] 1936년 3월 25일 ~

[소속] (주)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주소] 자택/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 85-406호

직장/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3-3 TCA빌딩

[전화] 자택/02-542-4179 직장/02-556-7903

연보

- 1936 전남 벌교 출신
- 195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등교원과정 졸업
- 1964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건축미술과를 졸업
- 1966 애플싸롱 인테리어
- 1966~73 신세계백화점 인테리어 담당과장
- 1968 한국무역박람회에서 삼성관 설계
- 1969 일본 미스코시 인테리어 연수
- 1970 일본 EXPO '70 디자인 연수
- 1971 국제건축가연맹 총회에 참석해 미주지역 건축문화 시찰, 레스토랑 '파인 힐' 설립,
- 1972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관 설계, 독립기념관 전시설계, 아시안게임 환경디자인, 전쟁기념관 설계
- 1973 서울올림픽 뉴델리 국제전시회 특별상 수상
- 1976 조성열 건축작품전(신세계화랑)
- 1977 조성열 건축작품집 출판
- 1977~78 큐빅디자인 연구소 개설
- 1979~81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강사
- 1981~85 삼성 본관 식당가, 정순오 산부인과의원, 트로아조 명동본점 빌딩, 경양식 레스토랑 '숲속의 빈터' 디자인
- 1981~85 뉴욕 존 맥밀란 설계사무소에서 연구, 조성열+박현기 건축작품전(대구화랑)
- 1984 중국식당 목락, 호텔신라 인테리어, 스테이크하우스 봉원, 호텔롯데 아케이드 내장공사
- 1985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초대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이사, 미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ASID) 정회원
- 1987 '88서울올림픽 국제 전시회 한국관 설계, 동작품으로 뉴델리 국제 전시회에서 최고상 수상
- 1989 힐 사이드(1981), 선콘가든(1983), 연경빌딩(1988), TCA빌딩(1989)으로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수상
- 1990 성신여대 조형대학원에 출강
- 1991 '88서울올림픽 홍보관 실내건축
- 1992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역임, 독립기념관 전시실, '86서울아시안게임 환경디자인과 '88서울올림픽을 위한 물품 비교 전시관 설계
- 1993 (주)큐빅디자인연구소 소장

세부 웹디자인7-기업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공예디자인

▶ 시발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 하동환자동차 | 신진자동차 | 대우자동차

[명칭] 현대자동차

[설립자] 정주영

[설립연도] 1967년



현대자동차

[전화] 02-746-6063

연혁

1967. 12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설립
1968. 2 미 포드사와 기술·조립 계약 체결
1968. 4 포드와 판매계약 체결
1968. 11 코티나 생산
1969. 5 포드 20M 생산
1971. 9 코티나 종료
1971. 11 뉴 코티나 시판
1972. 5 기획관리실 해체
1973. 4 기획실 재신설
1973. 6 포드 20M 종료
1973. 9 이탈리아 이탈디자인사 및 스위스 SAET사와 차체설계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1973. 11 소형승용차 기본 스타일 결정
1974. 6 이탈디자인사, 시작차 1호 완성
1974. 9 고유모델 차명 포니(PONY)로 결정
1974. 10 제55회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와 포니쿠페 출품
1975. 12 포니 출시(국내 최초 고유모델)
1976. 2 PONY 시판, 사우디 아라비아에 포니 시험 수출(15대)
1976. 12 뉴코티나 종료
1977. 3 코티나 마크IV 생산
1977. 11 포니 1,400cc 생산
1978. 1 제56회 브뤼셀 국제자동차 박람회에 참가
1978. 2 포니 생산 5만대 돌파(수출대상 37개국)
1978. 3 제48회 제네바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참가
1978. 10 고유모델 중형승용차(Y카) 제품기획 착수
1978. 11 그라나다(6기통) 시판
1978. 12 Y카 스타일링 착수
1979. 3 이탈디자인과의 Y카 시작차 제작에 대한 계약 인가
알파프로젝트와 Y카 차체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
1979. 7 Y카 스타일링 완료, 모델 제작
1979. 10 마크-IV 이코노미 생산

세부 웹디자인8-기관

- 진흥기관
- 교육기관
- 언론사
- 협회
- 공모전

▶ 대한산업미술가협회 | 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 한국디자이너협회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한국시각
한국공예가협회 | 한국패키지디자이너협회 | 한국디자인학회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



[명칭] 대한산업미술가협회
/Korea Visual Design & Crafts Association
[설립연도] 1945년 12월 27일
[대표] 정담순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4-8 용호빌딩 101호
[전화] 02-323-1303
[FAX] 02-323-1303

연혁

- 1945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
 1946 동화백화점에서 '조선산업미술가협회 발표전' 개최
 1946. 5. 21~5. 31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창립전 (동화백화점 화랑)
 제2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46. 12. 25~ 제3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47. 1. 5
 1947. 5. 21~5. 29 제4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고도 경주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7. 9. 16~23 제5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남해의 조선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8. 4. 20~30 제6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산업건설전, 동화백화점 화랑)
 1948. 10. 1~8 제7회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50. 4. 25~30 제8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동화백화점 화랑)
 1954. 4. 10~19 제9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1954. 5. 3~12 제10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
 제11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건국10주년 기념전, 중앙공보관 화랑)
 1959. 4. 20~30 제12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중앙공보관 화랑)
 1960. 10. 17~23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KAA) 산하단체 등록(제27회)
 1962. 3 제13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제주관광전, 중앙공보관 화랑)
 1963. 3. 11~17 제14회 대한 산업미술가협회 회원전(강원도 관광전, 강원도 공보관)
 1964. 8. 20~27 제15회 회원전/ 제1회 산미공모전(신문회관 화랑 1층·3층)
 1965. 9. 11~17 제16회 산미전(미도파 화랑)
 1966. 5. 7~13 제17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제2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6. 11. 14~19 창립 20주년 기념 제18회 산미회원전/ 제3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7. 10. 27~11. 1 제19회 회원전/ 제4회 산미공모전(중앙공보관 화랑)
 1968. 10. 21~30 제20회 회원전/ 제5회 산미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덕수궁))
 1969. 7. 11~17 제21회 회원전(신문회관 화랑)
 1970. 2. 14~20 제22회 산미전/ 제6회 산미공모전(국립공보관 화랑)
 1970. 12. 21~26 회원전 및 한일작품 교환전
 1971 아시아전 개최
 일본의 이과회 산업디자인부와 일본 신공예가연맹이 참가하는 한일교류전

세부 웹디자인9-디자인 출판

■ 출판

■ 잡지

▶ 산업디자인 | 월간디자인 | 꾸밈 | 포룸 | 시각디자인 | 디자인저널 | 디자인비즈니스 | 코스마

[명칭] 산업디자인

[초대발행인] 이낙선

[창간일] 1970년 11월

산업디자인

연구내용

산업디자인은 현존하는 디자인 전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 11월에 「디자인·포장」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이후에 1983년 4년 67호부터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격월로 발행되었다. 정부의 디자인 진흥기관인 현재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되기 때문에 주로 산업디자인과 포장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디자인지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에 관련된 자료들을 비롯해 세계적인 디자인의 동향과 유명 디자이너들의 기고문 등 단순한 정보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는 논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발간되게 된 계기를 당시의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이사장이던 이낙석의 발간사를 통해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이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놀라울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음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질적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질적인 향상은 오직 꾸준한 품질개선에 대한 연구로 이룩되는 것 이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곧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 개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과 포장의 실정은 국제수준에는 아득히 뒤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의 디자인이 나쁘고 포장이 조악해서 국제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애써 개척해 놓은 귀중한 해외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예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 자체는 외국 상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으면서도 디자인과 포장이 나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히 있었습니다."라고 해 그동안 디자인 분야의 육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수출 위주로 전환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포장」은 정부의 디자인 육성방침을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발간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 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에까지 고루 순회하며 디자인 포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보도기관을 통한 계몽활동, 갖가지 간행물을 발간하여 배부하는 일을 담당했다.

창간호에 실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책에 대한 소고·김교만

한국의 문양①

대문의 특성과 종류·유근준

한국의 공예①

역대 한국 공예의 장의 특색·이화수

산업 디자인 강좌①

상표·이원수

세부 웹디자인10-관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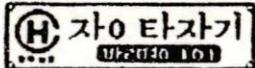
- 인쇄
- 인쇄프로세스
- 제지
- 디자인재료
- 한글기계화
- 출판
- 옥외광고

▶ 공병우타자기 | 장봉선 장타이프사

[명칭] 장봉선 장타이프사

[설립자] 장봉선(張鳳仙)

[설립연도] 1945년



연혁

1945	장타이프사 설립 한국 최초의 벤톤 활자 개발
1950	공판타자기용 벤톤 자모 조각
1953	장타이프사 서울로 이전 모리사와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며 사진식자기 보급 2벌식 장봉선 타자기 개발
1957	한글 풀어쓰기에 기초한 풀어쓰기 타자기와 모아쓰기 타자기 개발
1971	국내 최초로 수동식자기 CHB 개발

연구내용

장타이프사는 1945년 장봉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글기계화 및 활자개발에 평생을 바쳐온 장봉선(張鳳仙)은 우리나라 원도활자 시대의 수많은 비사(秘史)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장봉선은 고종사촌인 정의진(丁義眞) 선생으로부터 세계사, 위인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비롯해 한글 풀어쓰기 등을 개인 교습받았다. 이때 배운 풀어쓰기에 대한 교육이 평생 활자와 한글 기계화에 매진케 한 원천이 되었다.

1930년에는 그의 형이 먼저 가 있던 일본 아카시(明石)로 이주했다. 광복이 되자 그는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한글 서체 개발과 그가 하고 싶었던 풀어쓰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를 위해 한글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지자 1945년 10월 도쿄에서 '장타이프사'를 설립했다. 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활자개발의 기운이 고조되어 있었고 질 좋은 인쇄기, 활자제조기, 사진식자기들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도 많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활자를 구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당시 최대의 활자 및 인쇄 관련 기계 제조회사인 일본 타이프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장타이프사를 설립한 장봉선은 이원모 자체를 응용해 활자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도쿄대학 도서관 신문과에 비치된 「동아일보」(1944년 5월 17일자) 2페이지를 입수, 인쇄된 한글 활자 700자를 5센티미터로 확대해 이를 가지고 일본 타이프사에서 1948년 10월까지 4호 크기의 벤톤 자모 1,300자를 완성했다. 바로 이 글자가 한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벤톤활자다. 이를 단식인쇄기와 공판타자기로 「청년시보(青年時報)」 및 재일 한국 기독교 기관지인 「복음신문(福音新聞)」 발간에 사용했으며 1948년부터 1950년 8월까지 한글 벽자(僻字:흔히 쓰이지 않는 고벽한 글자) 1,000자의 원도를 추가로 완성해 6·25 동란시 이를 재일 미군 한글학교의 한글교재용 공판활자로 사용케 했다.

또한 그는 문현에 나타난 최지혁의 원도를 쓴 쪼끼지활자제조소(縮地活字製造所:최지혁 전태자모 및 박문구 난풀 활자를 제조한 제조소)에서 만든 서서체를 수소문체, 사태가 아즈 야초 한 4호 활자 2,300자를 1945

세부 웹디자인11-한국디자인사연구회

- 인사말
- 시삽칼럼
- 공지사항
- Q&A
- 회원동정
- 자유게시판
- 한국디자인사연구
- 기증자료
- 관련기사
- 관련전시
- 일정관리
- 메일매거진
- 설문조사
- 협력기관/기업
- 최근게시물/검색
- 회원가입/탈퇴
- 회원정보

한국디자인사연구회



개설일 : 2002-05-09 운영자 : 박암종
(pajong)

클럽소개: 한국디자인사를 연구하는 동호회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국디자인 사료를 발굴, 연구를



- 인사말
- 공지사항
- Q&A
- 회원동정
- 자유게시판
- 한국디자인사연구
- 기증자료
- 관련기사
- 일정관리
- 메일매거진
- 설문조사
- 협력기관/기업
- 최근 게시물/검색
- 회원가입/탈퇴
- 회원정보

□ Weekly Image DATA



이 사진엽서는 1920년대의

클럽 인사말..

한국디자인사연구회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건의사항 및 추후과제

가. 건의사항

- (1)지속적 사업으로 지원
- (2)동호회 활성화 지원
- (3)디자인 사료 기증 사업 지원

나. 추후과제

- (1)영문 및 일어번역 문제
- (2)추가 사항 기록
- (3)명예의 전당 시상제도
- (4)동영상 삽입
- (5)동호회의 활성화
- (6)한국디자인사 관련 포털 사이트로 발전
- (7)후원 및 협력 단체 지원체제 강화

■ 연구원 소개

<주관기관>

책임연구원

박암종/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선임연구원

이형주/미국 로체스터대학 석사/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교수

김의경/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강사

김미정/서울여자대학 국문과 학사/프리랜서

연구원

김승보/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프리랜서

박만종/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프리랜서

위촉연구원

이한주/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사/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겸임교수

박희성/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사/동서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겸임교수

<참여기관>

책임연구원

박인석/서울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장식미술학교/디자인하우스 본부장

양원철/연세대학교 사회학과/디자인하우스 이사

선임연구원

김신/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학사/월간 디자인 편집장

[주의]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용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디자인연구 개발 보고서입니다.

